

美, 이라크에 이란 끌어들이나

부시, 이란 망명객 알 하킴과 이라크 문제 논의 직접대화 어려운 이란에 '개입요청 메시지' 추정

이라크 문제와 관련, 4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시아파 최대 정파인 이라크이슬람혁명최고위원회(SCIRI) 압둘 아지즈 알-하킴 의장이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이란의 이라크 개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추측은 부시 대통령이 사실상 내전 상황인 이라크 문제를 놓고 하킴이 시점에서 알-하킴을 만났느냐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알-하킴은 잘 알려졌다시피 사담 후세인 정권하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기 위해 1980년 자신의 친형과 함께 이라크로 건너가 지금은 최대 정파로 성장한 SCIRI를 설립했고

이라크의 후원하에 자신들의 물리적 기반인 군사조직인 바드르 여단을 조직했다.

바드르 여단은 이란 혁명군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을 정도로 조직 초기 이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고 이 군사조직은 1980년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 편에서 조국인 이라크에 맞서기도 했다.

그만큼 이란은 알-하킴의 정치적 고향이자 아직까지 든든한 지원세력이다.

알-하킴의 비판세력은 그를 두고 '이라크인이라기보다는 이란인에 가깝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가 친(親) 이란 인사임을 감안하면 이라크와 연결통로 역할을 맡기엔 이라크 정계와 종파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그만큼 인물이 없다.

이라크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서 알-하킴은 이란을 이라크 문제에 끌어들이기에 최선의 카드인 셈이다.

이날 회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알-하킴을 통해 대(對) 이라크 메시지를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런 알-하킴의 위치 때문이다.

이날 회담으로 이란의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면 그간 알-하킴의 이란 망명과 친 이란 노선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알-사드르를 추종하는 강경파와 알-하킴의 온건파가 등을 돌려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던 시아파 내부 정파가 서로 분열하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있다.

이라크 개입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이웃 수니파 주도 국가의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동 지역에 새로운 갈등요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미이=연합뉴스



피지 군부 쿠데타 '정권 장악' 선언

프랭크 베이니마리마 피지 해군 준장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 성공을 선언한 5일 수도 수바의 총리 관저에서 군인들이 이날로 예정된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채 언론과 구경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AFP=연합뉴스

“中, 2020년 세계 자동차 시장 1위”

매년 10%씩 성장...2020년 미국 제쳐

중국을 202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 연구소 부주인이 4일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소의 정신리(鄭新立) 부주인은 중국의 자동차 생산이 향후 연간 10%씩 성장해 2020년에는 1천50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승용차가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중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자동차 생산량은 2004년 대비 12.56% 증가한 571만대였다.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정 부주인은 국내기업인 지리 자동차와 체리 자동차를 시장확장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들의 성공은 우리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체리 자동차는 값싼 자동차를 주로 개발 대상 3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리 자동차 창업자 회장인 리수푸는 200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NASA, 2024년까지 달에 '유인우주기지'

미 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24년까지 달에 인간이 상주하는 유인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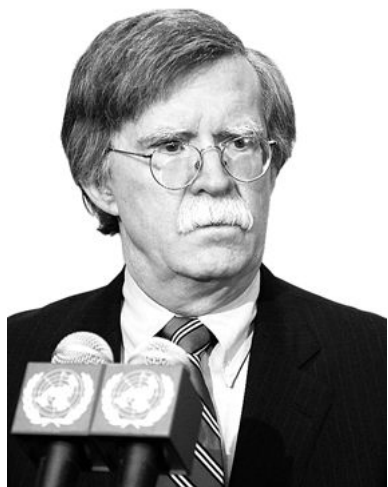
스콧 호로위츠 NASA 탐사국장은 여러 차례의 달 왕복 탐사에 이어 오는 2020년부터 지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고 기지의 위치는 북극이나 남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지는 장차 화성 여행에 필요한 기술들을 시험하는 과학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우주 탐사선들의 역외 시한인 2010년을 앞두고 14개국의 전문가 1천여명과 협의한 끝에 지난 1960년대의 아폴로 달 탐사계획과는 크게 다른 새 탐사계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 계획에 다른 나라들과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NASA의 이른바 '지구탐사전략'(GES) 개발 사업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케이프타운배출=로이터=연합뉴스

불턴, 美 유엔대사 전격 사퇴

부시 재지명 철회 '네오콘' 퇴조 급물살



턴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109차 미 의회 회기가 이번 주말 끝나게 되기 때문에 불턴이 수일내 대사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1·7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불턴 대사의 인준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민주당측은 반대 의사를 고수해 행정부와 의회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여 왔다.

민주당과 공화당내 반대인사들은 국무부 재임명시 드러난 불턴대사의 거친 '스타일'과 일방적이고 호전적인 태도가 유엔개혁등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며 인준을 반대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불턴 대사 인준

안을 상원에 제출하자 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백악관측은 12일 불턴 대사 인준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의 조지프 바이든 의원은 불턴 대사의 인준안이 재처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로써 부시 행정부 고위인사 중 지난달 중간선거 패배 이후 린스컴과 국무장관에 이어 두번째 퇴진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미 의회 소식통들은 “미국 국방정책과 외교의 강경 분위기를 주도해온 린스컴과 불턴이 연쇄 사퇴하게 됨으로써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들의 퇴조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달려 부족' 北 재보험 사기 의혹

英 재보험사에 1억5천만불 청구

북한이 외화에 쪼들린 나머지 지난해 7월 이후 영국의 재보험 회사들을 상대로 사고액을 부풀리거나 인명피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5천만 달러 이상을 사취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4일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 방송은 영국계 보험회사들을 대리하는 런던 소재 클라이드 법무법인의 페이튼 변호사 등의 말을 인용, 최근 북한 당국이 조선국영보험공사로 하여금 보험업무를 총괄토록 하면서 로이드 보험과 같은 세계적인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든 후 이들 회사를 상대로 화재, 인명사고 등에 대한 보상으로 수천만 달러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사육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적강★

개강 12월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 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9급 공무원 채용시험대비

국가직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행정직	교정직	농업직	소방직	경찰직
국·김·정·국·사·이·한·행·영·애·정·중·호 행정법·행위론·행정학·이명호	공채 : 450명 대비반 특채 : 1,000명 특별반	전국 대표적 농업직 강자 출제위원 이상우 교수팀	소방분야, 운전분야 소방직 책임합격	일반경찰 101단 차주운 합격팀 강의

개강 12월1일 합격률최고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광주 동부경찰서 뒤)
상담전화 ☎(062)222-5105
www.Chonnamgosi.co.kr

광주시 의료안내

“아름다운 의료문화를 열어가려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원”

病 院	내 科	成 形 外 科	産 婦 人 科	이 연 과	耳 鼻 咽 喉 科
광주현대병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응급실, 24시간 응급실, 24시간 응급실, 24시간 응급실 ☎ 570-0114, ☎ 570-0119	김정길내과의원 내과, 소아과, 임산부진료, 24시간 응급실, 24시간 응급실, 24시간 응급실 ☎ 228-7753	서현메카성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흉부외과, 안구수술, 안구수술, 안구수술 ☎ 232-3600	서구모아산부인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 881-9090, 881-9091, 881-9075	이연과 내과, 소아과, 임산부진료, 24시간 응급실, 24시간 응급실, 24시간 응급실 ☎ 380-5801, ☎ 226-8864	양한모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 224-1816, 226-7978, 227-3057